국내 1호 오리박사 곽용철 농협사료 충정지사 팀장 논문, 「오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 사료개발」로 박사학위 취득

곽용철 농협사료 충정지사 팀장

국내 최초 오리 농학박사가 탄생했다.

'오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 사료개발' 이란 논문으로 충북대학교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한 농협사료 충정지사 곽용철팀장이 그 주인공. 그는 오리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연구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오리에 대한 관심으로 오리관련 분야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의 논문에는 안정적인 새끼오리 공급을 위한 새로운 종오리 사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종오리 전용 사료 개발에 대한 연구와, 사료자원화 방안과 함께 웰빙식품 개발을 위해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는 커리(Curry)를 이용해 기능성 오리고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료 개발에 대한 연구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커리를 이용한 전용사료 개발 연구는 실제 기능성 물질에 의한 오리고기 내 불포화 지방산 함량 증가를 보여 웰빙 식품개발을 한 차원 높인 계기를 만들었다.

국내에는 오리분야에 대한 논문 발표실적이 없어서 오리농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참고문헌과 인용문헌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해외논문 서적을 참고하더라도 국내 환경여건에 맞는 사육매뉴얼 정립과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대학에서 오리분야에 대한 연구로 농학박사가 나온 것은 최초로 관련업계는 이번 연구가 오리산업 성장에 새로운 귀추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오리' 분야 전문 연구자의 새 지평을 연 국내 1호 오리박사 곽용철 팀장을 만나봤다.

국내 1호 오리박사 탄생

오리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주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오리 사료를 생산 · 공급 하면서 오리사육에 대한 사양관리지도 및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리가 향후 건강식품으로서 매우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직접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늘 학문에 대한 갈급함으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

▲학위수여식

▲농학박사 학위기

고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하여 충북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발전가능성이 많은 오리산업에 관련연구자가 없다는 현실에 오리관련 분야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리관련 사양시험을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할 때 오리관련 논문 발표실적이 없어 참고문헌과 인용문헌의 어려움이 많아 고생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과 자부심도 있습니다.

'오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 사료개발' 논문은…

논문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째는 안정적인 새끼오리 공급을 위한 새로운 종오리 사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종오리 전용 사료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를 통해 수정율 및 부화율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논문에는 사료자원화 방안과 함께 웰빙 식품 개발을 위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신료로 사용되는 커리(curry)를 이용, 기능성 오리고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료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리 산업은 국내 축산업 중 2010년 기준 여섯 번째로 큰 생산규모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축입니다. 그러나 종오리 해외의존 및 사육관련 기술 미정립 등으로 오리농가들은 새끼오리 구입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환경여건에 적합한 사육매뉴얼 정립과 사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육시스템 개발, 국내 실정에 맞는 오리 영양소 요구량,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소비자 관심에 부응하는 오리고기의 가치추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생산단계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출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사료분야만 연구한 '사료전문가'

사료와의 인연은 1987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사양

관리를 지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품질관리를 담당하여 사료 배합비율을 작성하고 농가 컨설팅 및 농가 사양관리 교육을 지도하면서 고객들의 고충과 축산기술 발전을 함께해왔습니다. 양질의 컨설팅 내실을 위해 축산기사 및 축산기술사, 농협중앙회 축종별 인증컨설턴트 자격을 얻고, 줄 곧 사료축산기술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팀장으로서 고객들의 눈과 귀가 되어 고객입장에서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국내 사료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내 배합 사료은 2009년에 98개 사료공장에서 1,650만 톤을 생산 공급 하고 있는 거대한 성장산업입니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 구성비 중 90%이상이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시세와 원료작황에 따라 사료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료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사료자원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카고 현물시장에서 주요곡물은 물론 해외에서 사료자원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원료가 있을 때 국내 업체들 간 과열 경쟁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원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어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업체가 스스로 지양하고 개선해야 다양한 사료원료 확보가 가능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농협사료만의 자부심

농협사료의 자부심이라면 우선, 기업의 이윤창출이 목적인 일반사료회사와 달리 양축가의 실익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합원이 주인인 사료회사라는 점입니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사료품질 및 가격 조절 견제 기능으로 사료시장의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지도, 지원사업 기금마련 이용고배당 등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농협사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18%를 점유하여 사료가격 및 품질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농가 실익증대에 기여하였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사료로 현재 전국에 9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사료 충청지사는 1984년 개장하여 양질의 배합사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여 조합원의

▲농협사료 충청지사 전경

▼농협사료 충청지사 팀원 사진

▲세미나에서 교육중인 곽용철 팀장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중소가축과 대가축 생산 라인을 완전 분리하여 2개라인을 가동, 안전하고 깨끗한 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안전축산물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과 2010년에 전국 8개 농협사료공장 업적평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해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지역 최초로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HACCP인증을 받아 양축농가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에는 48만톤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품질의 배합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생산 공급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리업에 바란다

오리 산업은 앞으로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축임은 분명하지만 외적 성장에 걸 맞는 관련된 기초학문과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현재 오리는 기타 가축으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어 개, 토끼, 말 등과 달리 양계와 함께 대표적인 중소가축으로 독립적인 가축으로 분리되어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가축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전국 각 대학의 축산관련 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리관련 학문에 집중적인 소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 분야 국내1호 박사로서 앞으로의 포부 및 계획

오리에 대한 관심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함과 부담감을 적잖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악한 생산 기반시설과 잘못된 사양 관리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많은 오리 사육농가에게 미력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달려가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단체 및 지역축협에서 오리 사양관리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고 전국 축산관련 대학에서 오리에 대한 특강을 통해 앞으로 배출되는 차세대 축산인력이 오리에 대한 전공 관련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후학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리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 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필요 하다면 달려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양계 PM 임명장을 받고 있는 곽용철팀장

▲오세관 농협사료 대표이사의 화한을 받고 있는 곽용철 팀장